



보도자료

- 광역철도팀장 전 성 철
사무관 김 용 상
- ☎ 02-2110-8720~2
- yskim52@moct.go.kr
- 1월 18일 배포(총 4매)

• 1월 18일 11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경의선(성산~문산)간 우선개통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

- 고양시, 파주시 지역 '09년 상반기 광역전철 개통 -

□ 건설교통부는 투자재원 부족, 민원에 의한 지자체 인·허가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경의선(용산~성산~문산, 48.6km)복선전철사업 구간 중, 고양, 파주시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성산~문산(40.6km) 【붙임 1 우선개통구간 노선도 참조】 간을 '09년 상반기 우선개통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.

※ 민원내용 : 고양시의 백마역~탄현역 구간(6.5km)지하화 요구 등

- 현재도, 고양(90만명), 파주시(30만명)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은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교통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, 파주 운정 신도시 입주 및 추가분양 예정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제2자유로 건설 및 경의선 복선전철개통이 필수적이지만, 경의선은 투자재원부족, 제2자유로는 지자체(파주·고양시)간 노선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

(‘08년 착공예정)되어서,

- 교통난 심화가 우려되는, 파주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추어 ‘09년 상반기 성산~문산구간 우선개통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간 기획예산처(국비) 및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(지방비)와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계속협의를 하였고, 이에 추가하여 관련기관(기획예산처, 철도시설공단, 주택공사)과 협의를 통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발행채권을 주택공사(파주 운정신도시 사업시행자)가 인수, 우선개통 소요재원을 확보하기로 합의 후 「사업비지원협약서」 체결을 완료(‘06.11.2)하였다.

※ 채권발행조건 : 3년 만기 국고채, 이자율 -0.5%,
발행금액 : 3,000억원(‘07년 2,200억원, ‘08년 800억원)
· 우선개통사업비(8,170억원) : 국고 3,000억원, 채권 3,000억원,
지방비 2,170억원

- 또한, 신속한 민원처리, 원만한 인·허가 협의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하여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 T/F 팀의 구성·운영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(개통가능 공정을 인 87% 달성 목표)할 계획이다.

※ 관련기관 : 건설교통부, 경기도, 고양시, 파주시, 철도시설공단, 철도공사

- 건설교통부는 성산~문산간(40.6km)이 개통 되면 지하철 3호선(대곡역) 및 6호선(성산역)과 환승체계가 구축되어 파주,

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신도시 교통난 완화(자유로, 수색로 등)에 기여하게 되고,

- 선로용량 증가로 철도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(26회/일→288회/일)이 되고 남북화해 정착과 경제교류 협력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물류지원(개성공단), 파주LCD단지 건설에 따른 화물 물동량 수요에 대처하고, 건널목의 입체화(20개소)로 철도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체증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붙 임 : 경의선(성산~문산) 우선 개통구간 노선도

불임 경의선(성산~문산) 우선 개통구간 노선도

